



[산업]
한화그룹 창립 68주년
포스트 코로나 주도
선도적 역량 당부
06



↑ 코스피 2403.73 (+11.77)	↑ 코스닥 873.50 (+1.88)
↑ 금리 (국고채 3년) 0.925 (+0.018)	↓ 환율 (원·달러) 1146.80 (-6.50) (12일)

‘음식 맛’도 저작권 보호대상 될까… 요식업계 핫이슈로

프렌차이즈, 골목식당 메뉴 표절논란

올카인드, ‘덮죽’ 메뉴 베껴
특허청에 상표권 출원까지
프렌차이즈 철수 밝혔지만
상표등록 출원 철회 미지수

프렌차이즈 메뉴 표절논란이
일면서 음식 레시피 저작권이
뜨거운 감자가 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SBS 예능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나온 경북 포항 덮죽집의 메뉴가 표절 당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소비자들의 비판에 결국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은 음식업체 ‘덮죽덮죽’ 운영사인 올카인드코퍼레이션이 이날 공식으로 사과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이슈가 끝맺음하는 듯싶지만, 프랜차이즈 업계의 인기 메뉴를 그대로 베낀 표절메뉴가 도마 위에 올랐다.

덮죽덮죽은 지난 7월 15일 방송된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한 포항 덮죽집과 무관한 업



(좌측부터) ‘골목식당’에 방영된 포항 덮죽집의 메뉴. 표절 논란에 휩싸인 덮죽덮죽의 메뉴

체지만 메뉴 이름에 ‘골목’을 넣고 시소덮죽, 소문덮죽 등 포함 덮죽집에서 개발한 메뉴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다.

올카인드코퍼레이션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접으며 사건이 일단락되는 것 같지만, 제2의 덮죽덮죽이 등장할 가능성은 여전히 농후하다. 게다가 올카인드코퍼레이션은 지난달 4일 특허청에 ‘덮죽덮죽’ 상표권을 출원한 상태다. 사과문만 발표한 채 상표등록 출원을 철회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덮죽덮죽 상표도 출원 단계일 뿐 등록된 것이 아니기에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

보인다.

요식업계의 제품 표절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가짜 강식당부터 흑당버블티, 안동찜닭 별집 아이스크림까지 요식업 프랜차이즈에서 표절 사례는 흔히 발생한다. 특정 메뉴가 인기를 끌면 우후죽순으로 비슷한 가게들이 유사 메뉴를 출시하며 경쟁하지만, 최초 개발자나 원작자에 대한 보호가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음식 조리법은 창작물의 결과가 아니라 창작 전 단계인 ‘아이디어’로 보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레시피나 조리법에 대한 특허권

인정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요리 과정을 계량화해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 심사과정도 까다롭다.

특허청에 따르면 음식을 제조하는 방법, 혹은 그러한 방법으로 제조된 ‘음식’이 특허출원 대상에 있다. 그러나 심사를 통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조리법이라는 점(신규성), 음식의 맛이나 조리법이 우수한 점(진보성) 등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요식업계에서는 디자인 특허나 상표권 등록을 이용해 권리를 보호 받기도 한다. <2면에 계속>

/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메트로신문 ‘2020 제약&바이오포럼’

포스트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K-방역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전례 없는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위기를 맞은 가운데, 국내 바이오 산업을 기반으로 한 한국의 방역 시스템이 세계 표준 모델로 자리 잡았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만든 코로나19 진단키트가 전 세계로 수출됐고, SK바이오사이언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은 글로벌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생산기지로 선점됐다.

정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K-방역과 K-바이오를 새로운 한류로 키우기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섰다. 국내 55개 제약·바이오기업들은 공동 출자를 통해 사상 처음 공동 투자·개발 플랫폼을 가동하고 신종 감염병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이에 메트로경제는 ‘2020 제약&바이오포럼’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이 만난 새로운 기회를 조망하고 혁신 신약 개발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온라인 웨비나 형식으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한국혁신 의약품컨소시엄(KIMCo)과 정부 부처, 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폭넓은 토론과 공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주 제 : 포스트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 ◆ 일 시 : 10월 21일(수) 오후 2시~5시
- ◆ 장 소 : 서울 종로구 을지로5길 19 페럼타워 페럼홀(3층)
- ◆ 주최 : 메트로경제
- ◆ 등록 : 메트로경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 ◆ 문의 : (02)721-9826 또는 forum@metroseoul.co.kr



국회, 국가기관 첫 수소전기버스 도입

박병석 국회의장(왼쪽), 공영운 현대차 사장 등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국회수소연료전기버스 시승식에서 현대차의 양산형 수소연료전기버스를 시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모펀드 사태 ‘권력형 비리게이트’ 공방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부실 사태를 놓고 ‘권력형 비리게이트’ 의혹이 불거졌다. 야권은 여권 인사들의 연루는 물론 금융당국의 특혜제공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2일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금융위가 특혜를 제공

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신청인이 접수를 문의하면 친절히 알려주는 것이 당연한 의무며 통상적인 업무절차”라고 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2017년 당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금융위 담당 직원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당국이 옵티머스의 대주주변경 사후 신청 과정에서 편의를 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녹취에 따르면 김 대표가 과

장으로 청한 금융위 직원은 “정부서울청사 민원실 1층 오셔서 전화주시면 제가 내려가서 접수 받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제보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금융위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금융위 과장이 소규모인 일개 자산운용사의 서류 승인 신청을 위해 직접 1층 민원실까지 내려가서 받아 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겠나”라고 지적했다. 또 “금융위 직원도 양호 회장을

알고 있다는 정황이 등장했다”며 “이는 금융위 윗선과 관계가 없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은 위원장은 적극 반박했다. 그는 “녹취록에 있는 목소리는 담당 과장이 아니며,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접수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며 “담당 과장이 직접 서류를 접수하지 않으며 금융위 외부 과정 직원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3면에 계속>

/안상미 기자 smahn1@

현대차 ‘수소경제’ 육성 선도 글로비스·제철 등 적극 동참

현대자동차그룹이 친환경 운송과 물류 환경 구축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한국의 미래 전략으로 수소 경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으면서 기업과 정부가 밸류를 대응을 통해 미래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 에너지 생태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수소전기버스 ‘일렉시티’가 국회 셔틀버스로 도입된다. 이

날 국회는 박병석 국회의장,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등 국회 관계자와 공영운 현대차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전기버스 시승식을 열고 수소버스 도입을 공식화했다.

이번에 도입한 수소전기버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내버스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양산형 버스다. 경찰버스 등 특수목적 차량으로 수소전기버스가 활용된 사례는 있지만 일반 양산형 수소전기버스를 도입한 것은 우리나라 국가기관 중 국회가 처음이다.

이와 함께 현대차그룹 물류계열사 현대글로비스는 수소 경제

네트워크의 핵심인 수소물류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내년부터 민관 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수소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수소 충전 가격도 현재 수준보다 20% 가량 저렴해질 전망이다.

현대글로비스는 수소에너지 네트워크 하이넷, 현대제철, 현대자동차, 한국가스공사, SPG와 ‘수소차용 수소 유통사업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현대제철도 차세대 수소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현대제철은 향후 수소 사업분야를 미래 신성장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 수소 생산·유통시설 확대 구축

▲ 주요 사업장 수소전기차(FC EV) 도입 및 수송차량 확대 적용 ▲ 수소를 활용한 친환경 연료전지발전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수소 생산·유통시설 구축을 위해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폐열 및 부생가스를 이용하는, 기존 생산방식과는 차별화된 친환경적인 수소 생산능력을 갖출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